

## “색다른 돼지고기 선사합니다”

# 돼지해를 맞아 ‘황금돼지’ 를 키우는 농가들이 있다.

충북 진천군에서 무항생 돼지 사육에 앞장서고 있는 도드람양돈농협 다살림영농조합법인(대표 심우진)의 농가들이 화제의 주인공들. 이들 농가들이 키우는 돼지는 가축분뇨로부터 환경을 살리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살린다는 점에서 ‘황금돼지’ 다.

무항생 돼지란 사료에 첨가되는 항생물질을 빼고 기르는 돼지다. “돼지가 얼마나 깨끗한 가축인지 아세요? 돼지가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면적당 사육마릿수를 유지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돼지로 길러내는 것이 사람에게도 이롭습니다.” 심우진 대표(51·진천군 문백면·대원농장)의 주장이다. 이들이 무항생 돼지 사육에 나선 것은 2002년부터. 전문가들조차 무항생 돼지 사육이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신지식인 이옥희씨(43·진천군 초평면·원산농장)는 사료에서 항생제를 빼내는 대신 새끼돼지 때부터 벌침을 놓아 질병에 대한 자가면역력을 높였다. 또 면역증강물질(된장 효모 추출물)을 첨가해 친환경 사육기술을 돼지 사육에 도입했다. 마침내 2년 뒤인 2004년 무항생 돼지 사육에 성공했다. 약취가 나고 항생제 때문에 씹지도 않던 돼지분뇨가 이제는 잘 곰삭아 친환경농가의 밑거름으로 활용되는 등 기반이 갖춰지고 있다.

모든 축산물에 무항생 사육을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세상이 변했다. 한국의 무항생 돼지 사육에 앞장섰던 옹골찬 노력이 친환경축산물 인증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만들어 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결실을 거뒀다.

현재 9농가가 국제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정회원이고, 22농가가 준회원으로 바짝 뒤를 쫓고 있다. 정회원 농가는 2만5,000마리의 무



“황금돼지야, 우리가 간다.” 충북 진천군에서 무항생 돼지를 사육하는 선도농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심우진 다살림영농조합법인 대표(가운데)와 정현규 도드람양돈농협 전무(왼쪽 세번째), 무항생 돼지 사육농가들이 돼지해를 맞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항생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진길부)에서는 컨설팅을 도왔다. 다살림영농조합 법인은 도드람양돈농협의 무항생 돼지를 사육하는 전위부대이기 때문이다. 조합은 정현규 전무(한국양돈연구소장)를 파견, 국내에 전무했던 무항생 사육에 대한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전파했다. 무엇보다도 '최저가격 보장'을 통해 무항생 양돈농가의 사육기반을 안정시켰다.

165일령 이상 110kg짜리 일반돼지가 평균 23만~24만원을 받는다면 무항생 돼지는 26만원대를 받고 있다. 1kg당 3,300원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줌으로써 친환경돼지 사육의 길을 터준 것.

올해는 돼지고기 시장에서의 차별화 전략을 꿈꾸고 있다. 진길부 조합장은 "수입 돼지고기보다 월등한 품질, 즉 위생과 안전·맛을 확보하는 길은 사육단계에서의 항생제 의존성을 벗어나는 일에서 시작한다"며 "도드람의 유통망을 활용해 전국 30여 무항생 사육농가와 브랜드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한다. 무항생 돼지 사육농가들의 성공은 이제 시작이다.

골칫거리였던 축산 환경문제도 훌륭한 자원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무항생 돼지 사육의 사양관리도 통일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브랜드 차별화 문제만 남았다. 뿐만 아니라 무항생 가축 육가공공장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저가 부위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축산물로 변신하기 위해서다. 또 퇴비 공동처리장도 준비 중이다. 당초 마음먹었던 대로 '자연순환농업의 실천'을 위해서다.

"건강한 돼지를 길러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돼지분뇨가 미생물 가득한 퇴비로 다시 농업에 이용돼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나와 내 가족도 살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돼지를 기르는 보람 아니겠습니까"라며 무항생 돼지 6,000마리를 사육하는 이규성씨(45·진천군 문백면·보성농장)는 벅찬 새해의 포부를 밝힌다.

▶ 진천 구영일 기자 [young1@nongmin.com](mailto:young1@nongmin.com)

**DoDram**  
도드람포크

